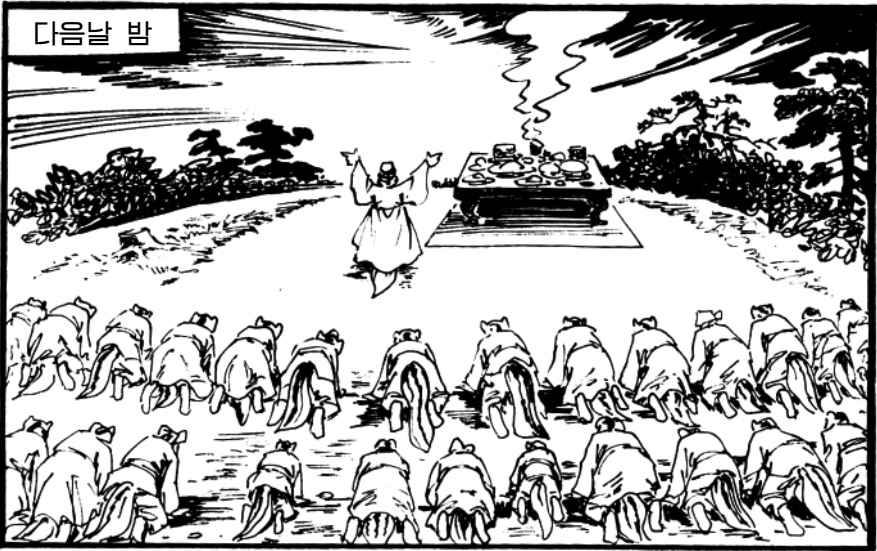
도적이다! 도적이다!

아이고! 여보
똘만이 아버지!
뭣이?!
그게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좌상어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소이까? 보초들을 다 죽이고 올겨울 먹을 식량을 다 털어갔소이다. 으흐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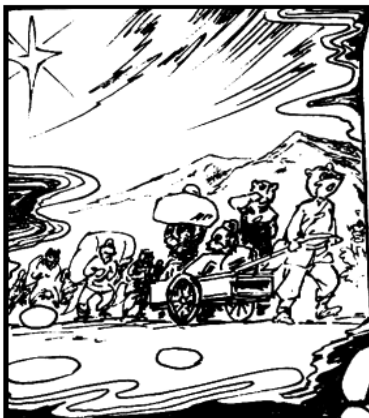
발자국들이 도깨비골입구에서 없어졌는데 방향을 보니 취악산놈들이 한 짓이 분명하오이다.
아이구, 원쑤로다.
그 천벌받을 놈들이 또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이뇨?
아이고
대고
보초들은 어떻게 죽었더냐?
모두다 독화살에 정통을 맞고 죽었소이다.
아!
가슴이 찢기는 일이로다. 어서 동네 늙은이들을 모두 모이라고 해라.

오! 거룩하신 하늘신이시여! 마음곱고 부지런한 우리들을 재앙에서 구원해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흉악한 도적무리의 소굴에 벼락을 내려 씨종자를 말리워 쌓이고쌓인 한이 풀리도록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봐라, 저 간악무도한 도적의 허수아비를 불태워 다시는 재앙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라. 그다음 모두 흩어져가 이사짐을 꾸리도록 하라.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도토리골로 들어가 겨울나이차비를 다시 해야겠다.
에익
휙

탁
이얏
쨍가당
저, 저…저녀석이 칠성단을 부신다. 야, 담발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불한당같은 놈.
이런 부정탈 일이라구야, 저놈이 정신이 나갔군.

정신이 나간건 내가 아니라 바로 동네어른들이예요.
뭐 뭐라구?
여러분!
우리 이제 더는 신세타령만 하면서 쫓겨다녀서는 안됩니다. 악독한 놈들이 어서 콱 망하라고 빌기만 할것이 아니라 손에 칼을 쥐고 싸워야 합니다.
웅성웅성
그처럼 마음곱고 부지런한 우린 계속 뜯기우고 못사는데 간악무도한 원쑤들은 더 잘살겠다고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하늘신한테 빌면서 쫓겨다닐것이 아니라 싸워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상소를 올리고 재판을 걸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을 력사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 취악산도적무리들을 재판에 고소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매를 맞고 정든 고장을 떠나 궁벽한 산골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것을 모르는분은 없을것입니다. 도적무리들과 한짝인 량반 구실아치들이 못사는 우리의 사정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피의 교훈입니다.
빌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이 닳게 빌고 또 빌었지만 바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 창과 칼을 들고 원쑤를 무찌르고 식량도 찾고 이 밤동산을 지킵시다.
옳소! 옳소 싸우자!
이 철없는것들! 너희들은 그래 몇십년전 우리가 성심성의 기도를 드려 그 취악산에 벼락이 떨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숱한 쥐놈들이 죽은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냐?

백년동안에 한두번이나 있을 가말가한 그런 자연현상을 두고 허황한 환상을 조성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린 마음편히 참답게 잘살고싶어요.
네, 이놈들! 무슨 수로 그 사납고 간특한 놈들을 이긴다고 그러느냐? 엉? 이제 후회하지 않나 두고봐라.
그리하여 다람쥐동산은 도적무리들을 쳐부시고 행복을 찾기로 결심한 담발이를 대장으로 하는 무리와 좌상을 따라 피난가는 무리로 갈라지게 되였답니다.

초비, 성발이, 변탈이, 황금이, 우리 굳게 뭉쳐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일떠서라 동무야
창칼 들고 싸우자
빌어선 안온다
울어선 안온다
용감하게 싸워서
행복의 봄 안아오자

우리의 손은 보배
행복을 창조하는 보배
자기 힘 믿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며 배우며
행복의 동산 꾸려나가자

이젠 부대의 무장도 갖춰지고 얼마간의 식량도 생겼다. 취악산을 들이치자면 쥐굴을 환히 꿰뚫어야겠는데 누구를 렴탐으로 보낼것인가?

에헴!
뭘하니?
아이 깜짝이야,
변탈이가?

왜 또 왔어?
히히, 황금이가
보고싶어서.

싱거운 소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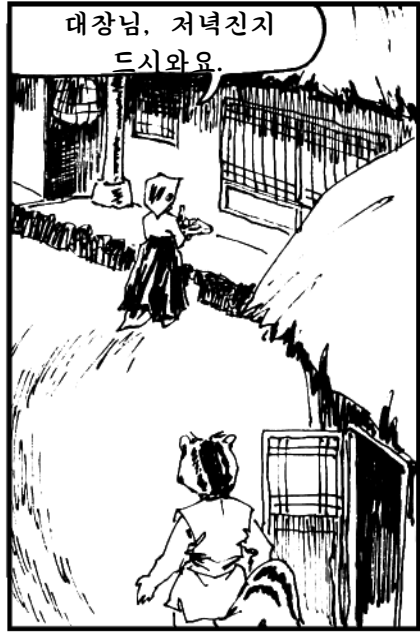
이건 곱다는데
잔뜩 토라져가
지구.

야! 이거 진수성찬인데
하나 먹어보자.
안돼,
이건
대장의
저녁식
사야.

흥, 대장입만 입이구
내 입은 입이 아닌가?
언제 그렇게 됐어?
됐어, 됐어. 어서
가기나 해.

대장님, 저녁진지 드시와요.

황금이, 수고하누만. 그래 군사들은 모두 식사했소?
예,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셔요.
흥, 고년 아양을 떠는군.
부대를 꾸리느라 몹시 상했어요.

담발이, 뜨내기같은 네가
감히 대장이랍시고 우리
모두를 줌안에 넣고 쥐락
펴락하겠단 말이지. 어디
두고보자.

군사들, 이 검을 보라. 우리가 틀어쥔 창검은 세기적인 숙적 취악산도적무리들을 소멸하고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기 위한 정의의 창검이다. 원쑤는 간특하고 사나운 놈들이다. 적을 죽이지 못하면 제자신이 죽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말라. 그럼 원정에 앞서 맹훈련을 하겠다.
공격대형으로 벌렷!

목표 앞산정점까지! 나무들을 련속 찌르면서 앞으로!

그날저녁
패장들,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충천하다. 군사들을 잘 준비시키는가 못하는가는 패장들에게 달려있다. 패장들부터가 그 어떤 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

대장, 우리 패는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소.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오.

변탈이, 그 임무는 한두명의 인원으로 렴탐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임무다.

알고있소. 그러나 이 변탈이는 동산과 우리모두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여있으며 털빛이 변색되는것으로 하여 적군으로 위장할수도 있는 좋은 점도 가지고있소. 그러니 걱정말고 그 임무를 나에게 주시오.

좋다. 모두 돌아가고 변탈이는 남아 임무를 받으라.

…이젠 알만 한가?
알겠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오겠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걸 명심하라구. 땅굴 잘 파기로 유명한 성발이를 데리고 가게.

황금이, 난 중대한 임무를 받고 취악산으로 떠난다. 이웃으로서, 소꿉동무로서 날 바래주지 않겠어?
좋아, 그러자꾸나.
황금이, 난 어쩐지 네가 남같지 않구나. 그래서 지난날두 더 추억되는것 같아.
별스럽게, 지금은 오직 임무수행만을 생각해.
너 생각나니? 언젠가 나와 각시놀이하던 그밤말이야.
그래 생각나.
그 시절을 되찾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밤동산으로 모셔올 그날을 위하여 우리 대장처럼 언제나 동산을 생각하고 큰 일만 생각하자.
챠, 이건 말끝마다 대장이야. 황금인 오랜 친구인 나보다 딴 마을에서 온 담발이를 더 생각하는가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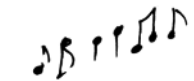
왜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니? 싸움에서 이기고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도 우린 모두다 대장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봐. 안 그래?
됐어, 됐어. 그만하자. 그럼 잘있어.
나삐 생각하지마.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성공을 바란다
변탈이, 성발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오리라 믿겠네.

한편 취악산 쥐굴에서는…

으하하 히히히
자, 나의 용사들! 실컷 마시고 놀아라. 며칠이라도 좋다. 우리 쥐들이야 이 맛에 사는게 아닌가. 마셔라.

우리의 대두령이신 취악산어르신님의 옥체만강을 천세만세 바라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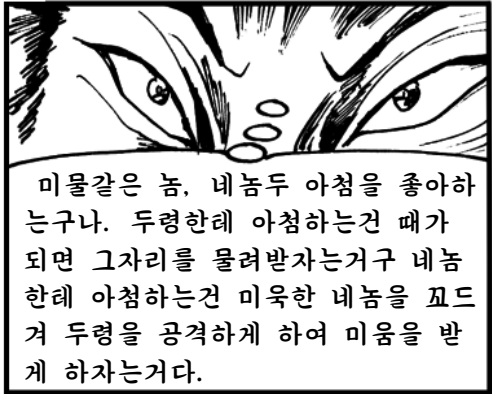
교설이, 좋아, 좋아. 너야말로 나의 둘도 없는 오른팔이로다.

가장 친근하고 존귀하신 어르신님, 소녀가 아름다운 춤노래로 어르신님의 뼈마디들을 노근노근하게 해드리리다.
호호호
으흐흐
하하
한없이 너그러우신 님
넓은 도량으로 우리를 감싸안네
그 품에서 복이 꽃펴나
이름없는 벌레들도 노래한다오
어화둥둥 지화자
너 좋고 나 좋네
그 품에서 무궁토록 내 살리라
지화자자 살아가리
뚱따땅
뚱땅

히히히, 요살이, 너야말로 이 무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양념감이로다. 추자, 추어라. 꿍짜 꿍짜짜.
흥!
너좋구, 나좋구. 뭐가 어째 쌍년!
아, 고년들이야 돌격대노릇이나 하는 우리 군발이들과 처지가 같소?

저따위년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저 우리가 죽도록 날라온 재물들이나 축내면서 아첨이나 하는것들.
두령은 저밖에 모른다니까요. 어디 우리들의 세간살이가 나아진게 뭐가 있소? 그저 모여서 술추렴이나 시킨것밖에 더 있는가 말이요?
요자식, 이자 방금 두령한테 아첨하더니. 이놈아, 옛말에 아첨하면서 서로 싸고도는 무리를 붕당이라 했고 그 무리가 파멸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앞에선 해해 하고 뒤에선 쏠고. 간특한 놈.

아니, 뭘 그러슈. 그래두 이 교설이는 저 늙다리가 빨리 콱 죽고 툴툴이님이 두령자리에 오르길 진심으로 바라고있는데 섭섭합네다.

그래? 그거 듣기 좋구나. 그렇다는 의미에서 한잔 들자!

짱

미물같은 놈, 네놈두 아첨을 좋아하는구나. 두령한테 아첨하는건 때가 되면 그자리를 물려받자는거구 네놈한테 아첨하는건 미욱한 네놈을 꼬드겨 두령을 공격하게 하여 미움을 받게 하자는거다.

교설이, 네 말대로 되면 오죽이나 좋을가. 마셔라. 마셔.
멍텅구리같은 놈. 나살이나 먹었다구 어른인줄 아니? 때가 되면 네놈두 물어메칠테다.

툴툴이, 교설이, 마시기
만 할텐가? 살살이, 빼설이
랑 심심치 않게 춤이랑 추
라구. 춤추는거야 누가 뭐라
나. 어서.
예예, 춤추라면
추겠소이다. 헤헤.

뚱따당 뚱땅
좋다, 좋지.

도령님!
급보요!

으응?! 무슨 일이
게 흥을 깨치느냐?
렴탐나갔던 짹술이
의 보고에 의하면 밤
골놈들이 우리를 치
겠다고 군사를 일으
켰다 하오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놈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우린 가져다 먹고 그놈들이 딴데로 가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또 가져다 먹고 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왔다. 2백년전 재판놀음을 벌렸다가 도리여 패한 후로는 찍소리 한번 없던 놈들이 무슨 담이 생겨서 싸우자 하는가? 이젠 악에 받친다는건가. 히히, 그럴만두 하지.

오기만 해봐라. 네놈들을 몽땅 함정에 처넣고 산채로 살고기를 발가내서 불고기 주연을 벌릴테다.

한편
경비가 삼엄하구만.
가까이 접근해서 뚫고들어갈 틈을 찾자구.
파수놈을 하나 홀쳐서 쥐굴략도를 그리게 할가?
대장은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놈들, 이 교설이가 나무우에 잠복하고있는줄 몰랐을테지.
이쪽으로 파고들어가면 될것 갈네. 변탈이, 망을 봐주게. 정황이 생기면 이 끈을 당기라구.

엥이, 여기서 어떻게 속절없이 기다린담. 난 나대로 변장하고 교대틈에 끼워 취굴에 들어갔다 와야겠다.

외딴곳에 서있는 저놈을 덮쳐가지고 변장해야지.

흠, 모험을 즐기는 놈갈군.

휘

야!

당겨라. —

얏!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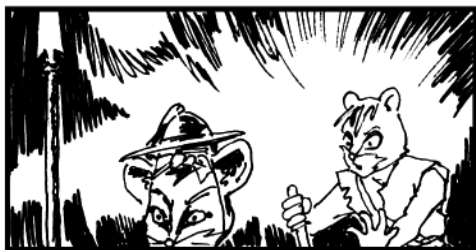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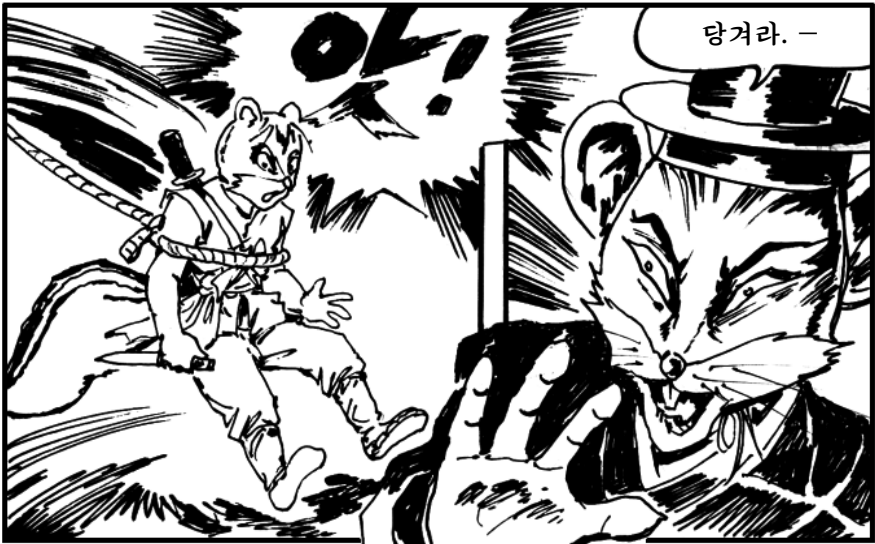
흥, 네놈들한
테 입을 벌릴
내가 아니다.

좋다. 야, 이자리에 땅을 파
고 창대들을 세워라.
옛!

이제 칼로 이 바줄을 끊으면
너는 떨어지면서 저 창대들에
그대로 박혀죽게 된다. 셋까지
셈을 세겠다.

하나

둘

으악
다말하겠소
살려주오!

으하하
그러면 그럴테지. 어서 말해.
히히히
우리가 받은 임무는 취굴의 략도와 그 내막을 알아내는것이요.
갈이 온 놈은 어디 갔어.
굴 잘 뚫기로 소문난자인데 우리들이 엎드려있던 곳에 있는 큰 바위밑에서부터 굴을 뚫고 들어갔소. 거기에 가보면 끈이 있을거요. 그 끈을 당기면 정황이 생긴줄 알고 나올것이요.

그놈을 잡을 때까지 조금 더 매달려있어.

곰보, 넌 여기서 저놈을 지키구있어. 나머지는 모두 날 따라와.

칼을 치우고 끈을 당겨라.

한편
으음, 저 층계를 타고 오르면 두령놈의 방이구나.

엉?! 밖에서 정황이 생긴가보군. 나가보자.

아니? 변탈인 어디가고 내 검은 어디에…

꼼짝 말앗!
움직이면 죽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놈들에게 순순히 잡힐순 없다. 피값이라도 하자.

이-얏
빽
빽
산채로 붙잡으라.
휙
이놈!
빽
데굴 데굴

활을 쏘라. —

야, 나무에
매놓은 놈을 끌고
두령한테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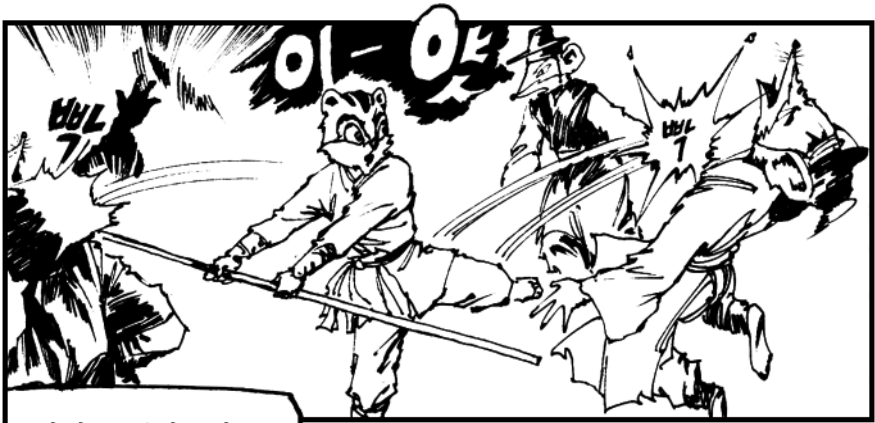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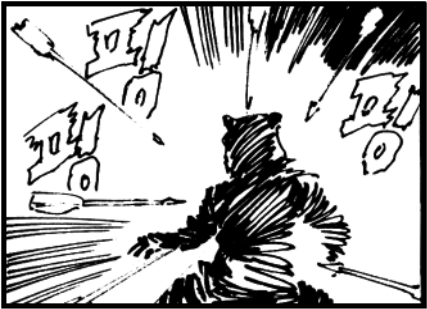
성문을 열라.
공세운 이 교설대
장이 들어간다.

으흐하하
이번에 순라교위 교설
이가 큰공을 세웠다.

공을 세운 교설에게 호
위도감의 벼슬을 하사
하노라.

황송하
오이다.

불잡은 놈을 끌어오라.

무릎꿇고
앉아.

네 이놈,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모든것을 사실대로 털어놔라. 네놈의 이름은 뭐고 너희 무리의 대장은 누구이며 군사의 머리수는 얼마인가를 말이다.
저의 이름은 변탈이옵고 원래 다람쥐가 아니라 저 서해곡창 등줄쥐의 후손이오이다. 증조부때 란이 일어 여기 피난와서 다람쥐무리에 들었다 하오이다.

음, 그렇단 말이지. 너희 무리에 대해서 말해봐.
무장한 군사의 수는 백이옵고 대장은 담발이라는 작년에 딴곳에서 온 뜨내기같은자올시다.

그자가 늙은이들의 의사에 반기를 들고 우리들을 부추겨 창검을 벼리도록 하였나이다. 대장자격두 없는자가 자기를 대장이라고 자칭하면서 무모한 싸움에로 우리를 내몰고있소이다. 취약산렴탐임무도 그자가 강요하는바람에…
흑흑

두령님, 나에게 군사 2백을 주시면 밤골무리를 평정하고 해마다 각종 곡물과 봉물들을 짝짝 섬겨 바치겠나이다. 믿어주소이다.

음, 쓸모있는 놈이다. 어떻게 리용한다?

좋다. 우리가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너는 래일 내가 그려준 취굴략도와 렴탐자료를 가지고 밤골로 돌아가서 대장놈에게 줘라.

뼈가 가루되여도 두령님의 뜻을 받들겠소이다.
좋아! 좋아

좋아! 형방 툴툴이, 밤골놈들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온 이 용사를 푹 믿게끔 분장을 좀 해주라. 칼자리도 몇군데 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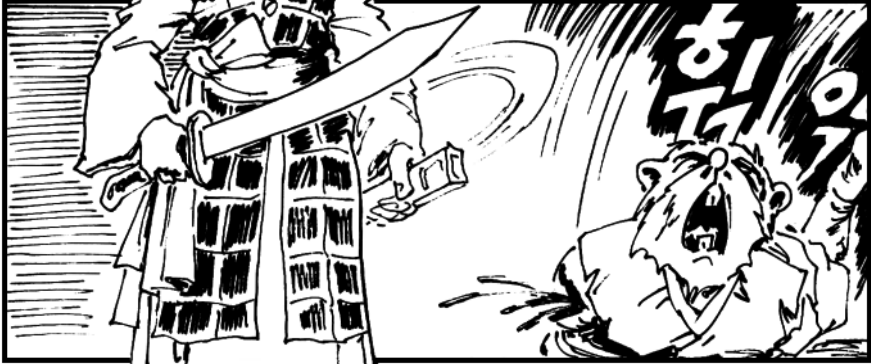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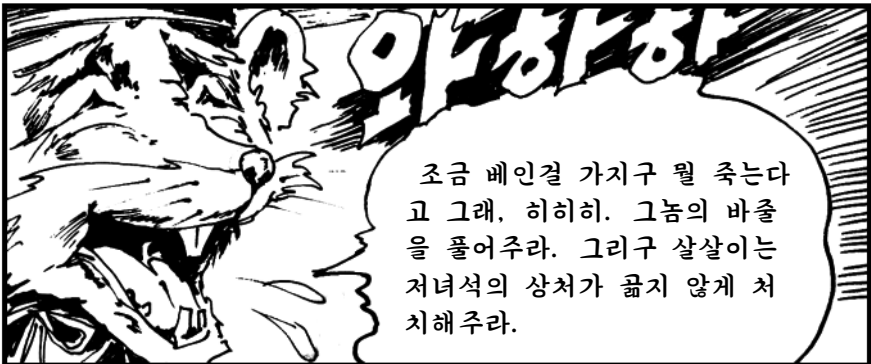
히히…
자네 꿈을 실현하자면 아파두 참아야겠네.

아이고
나 죽는다.

자, 어디 좀 베줄가? 응? 흐하하!

엉엉..

제발 그만하슈. 아이고, 아파라. 엉엉.

으악

나죽는다.

아유, 큰일할 영웅이 울다니요. 녀자의 살뜰한 애무는 상처입은 남자의 마음을 아물게 하는 명약이랍니다.
흑흑
아!
내 언제한번 이런 애틋한 정 느껴본 적 있었던가.
자, 밤골동산의 젊은 두령을 위해 큰 축하연을 베풀도록 하라.
성공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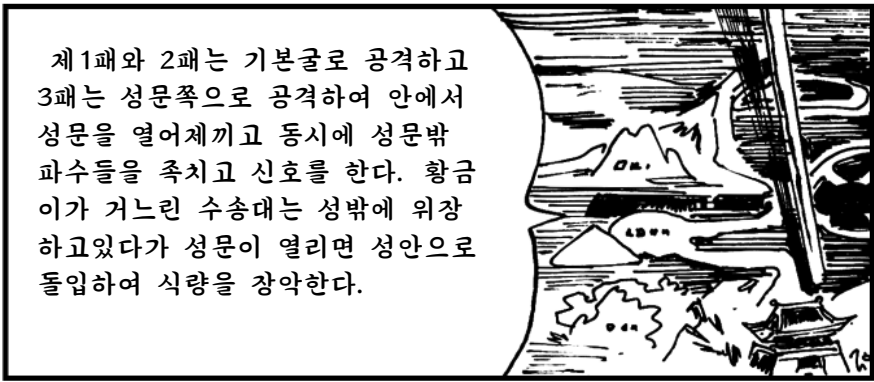
이틀후

성발이가 죽다니, 아!

굴을 뚫고 들어가다가 놈들에게 발각되여 추격을 받게 되였는데 성발이가 놈들을 유인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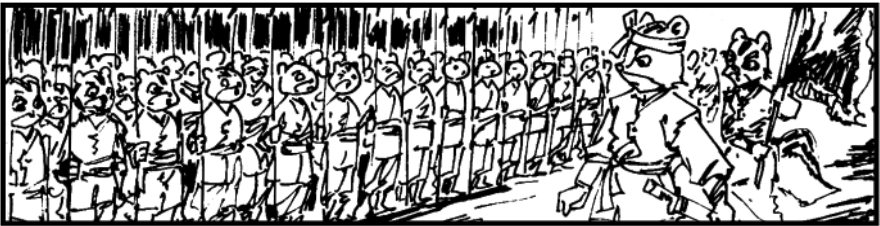
아직도 내 귀에는 임무를 부탁한다고 하던 그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리네. 아! 성발이!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하는건데…

흑흑

이번에 변탈이의 공로가 대단히 컸다.
전투임무를 하달하겠다. 모두 지도앞으로 나오라. 부대는 한시간후 현재위치를 떠나 새벽 묘시(5-7시) 망두석바위근처의 습격선을 차지한다. 성벽은 견고하므로 산중턱에 뚫어놓은 숨구멍을 통하여 공격하겠다.

제1패와 2패는 기본굴로 공격하고 3패는 성문쪽으로 공격하여 안에서 성문을 열어제끼고 동시에 성문밖 파수들을 족치고 신호를 한다. 황금이가 거느린 수송대는 성밖에 위장하고있다가 성문이 열리면 성안으로 돌입하여 식량을 장악한다.

변탈이는 기본굴까지 대오를 인솔한 후 3패에 망라되여 성문을 열고 루각에 있다는 성발이의 시체를 달구지에 싣게.
알겠네.

습격시간은 놈들이 아침밥을 먹는 시간인 진시(7-9시)까지 은밀성을 최대로 보장한다. 공격시 주력의 선두에는 나와 변탈이가 서며 3패는 초비가 지휘한다. 모두 돌아가 출발준비를 갖추라.

빨리 빨리

군사들! 동산과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사전의 시각은 왔다. 원쑤들에게 굴복하고 노예로 살겠는가, 아니면 자기 운명을 두손에 틀어쥐고 승리자로 살겠는가. 모두다 놈들의 손에 쓰러진 부모형제들의 복수를 위하여,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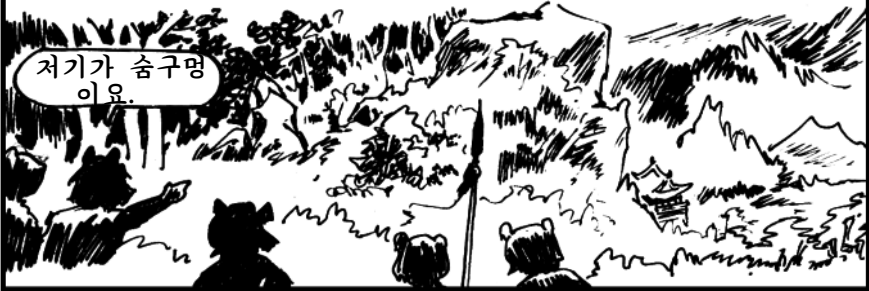
출발!

위험하겠는데 몸을 조심하오.

알겠어요. 대장님도 몸조심하세요.
걱정마오.

수송대를 잘 지휘해주.
념려마세요.

걸음을 다그치라. 날 밝기 전에 취악산에 닿아야 한다.

걸음을 다그친 다람쥐부대는 동틀무렵 취악산쥐굴을 포위하였습니다.

패랭이에 흰천을 맨 짝솔이라는 쥐가 분명하구나. 됐다.

상처가 일없겠소? 초비를 대신 보내지.
대장, 내가 파수를 제끼고 신호하겠소.

걱정마오. 이 변탈이가 오늘 성발이의 원쑤를 어떻게 갚는가 보오.

놀라지 말고
죽는체해라.
으…
어떻게 련락하
게 돼있느냐?
교설도감이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
밤골놈들이 굴안으
로 다 들어간다음
내가 돌문을 닫기
로 돼있다.
빨리 빨리
이놈들, 몽땅
들어가거라, 이
제 혼쌀이 날
게다. 흐흐.

대장, 이제부터 40m구간은 어둡고 좁은 굴이요. 서로 창에 찔리지 않게 간격을 두고 기여나가야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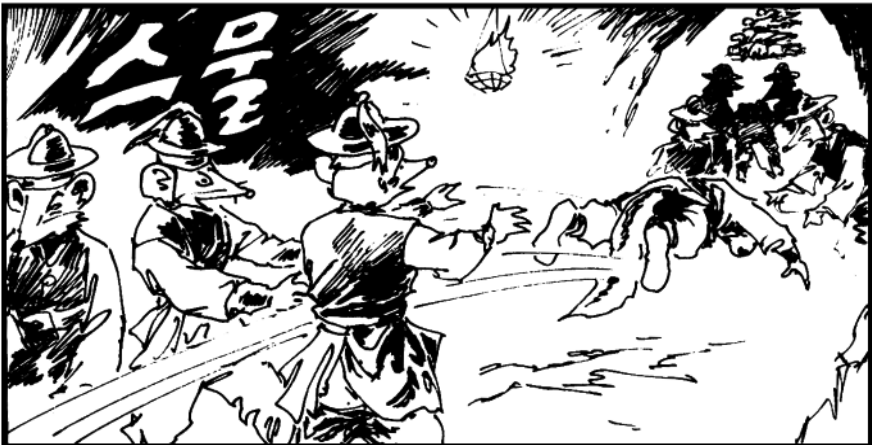
내가 먼저 기여갈테니 3-4m 간격으로 군사들을 출발시켜주시오.
알겠네.

흥, 담발이 이놈, 동산의 주인은 나다.

쉿! 3m간격으로 기여오고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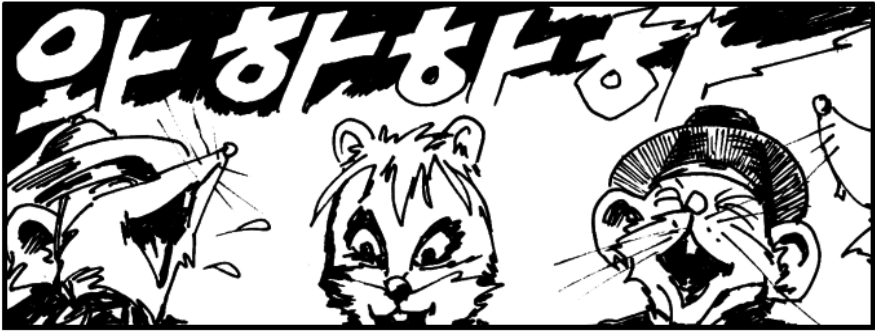
자! 창대부터 내밀면서 나오라구.

소리치지 못하게 자갈을 물려라.
정신이 좀 알딸딸하게 해주지.
퍽
세상에 이런 사냥도 있담. 히히.
한놈
빨리 손을 묶자.
철썩
자식들 조용해. 눈치채면 다야.
스물

십팔
십구···

이 좁은 굴의 거리가 변탈이의 보고와는 차이난다.

누군가?
변탈일세. 모두 페갱에 숨어 대장을 기다리고있네.

드디어 기다리던 복수전의 시각은 왔다.

딱
이놈이 바로 대장이요.

자, 변탈이, 천하가 네 춤안에 들어왔다. 용기를 내서 수송대를 끌어들여라.

황금이 이년, 네년도 이젠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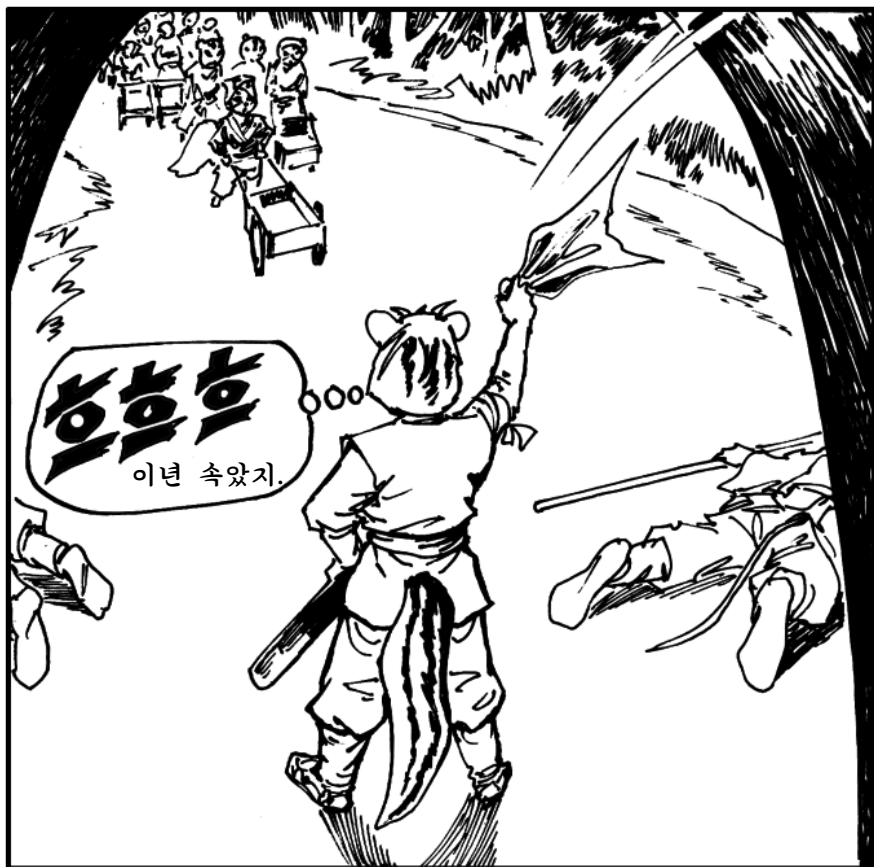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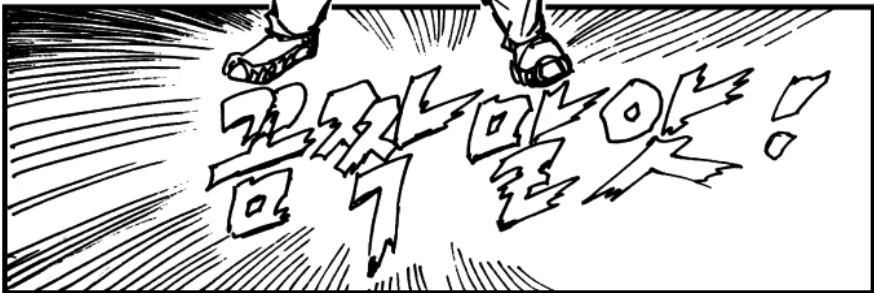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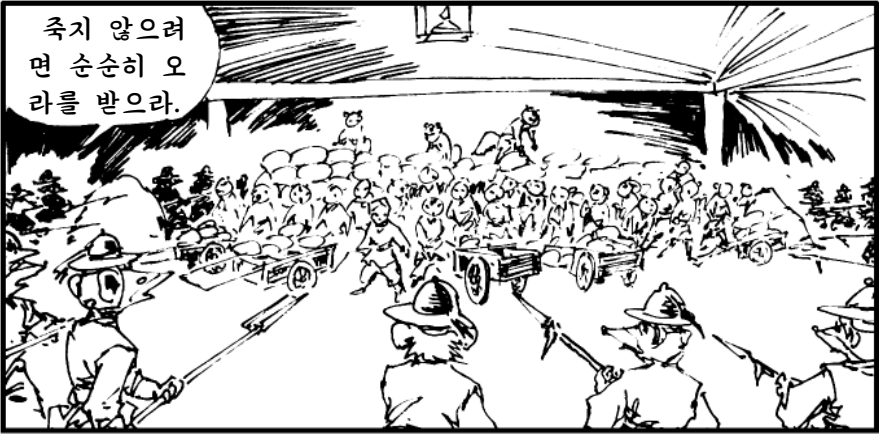
성문을 열라!

드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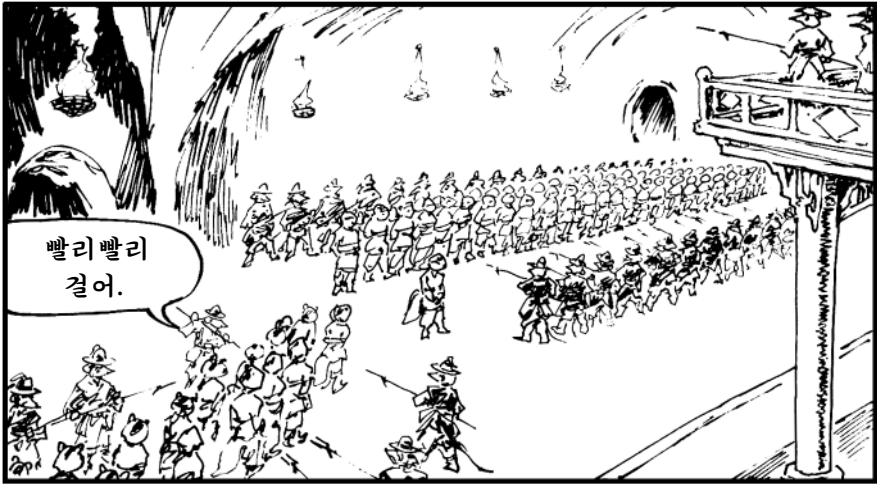
어서 넘어져라!
넘어져.
히히익

흐흐흐
이년 속았지.

모두 활과 전통을
벗어놓고 식량마대
들을 져나릅시다.

꼼짝말앗!

죽지 않으려
면 순순히 오
라를 받으라.

으하하
변탈이?!

너희들의 대장이 있는
곳으로 어서 가자.

대장님!

황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예요? 예?

면목이 없소. 나때문에 부대가… 아!

걷어치워라. 이 날강도놈들아!

이 천벌받을 역적놈아! 다 죽으면 죽었지 네놈의 말을 들을것 같으냐, 이놈!

아, 대오안의 원쑤 한놈이 대오밖의 천만 대적보다 더 무섭다더니, 내가 저런 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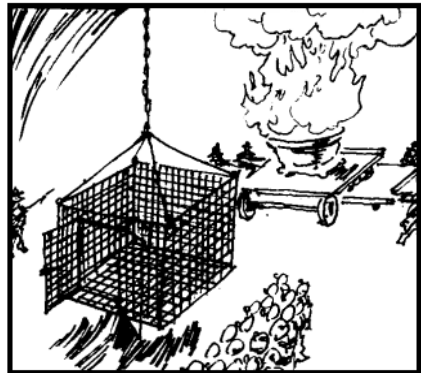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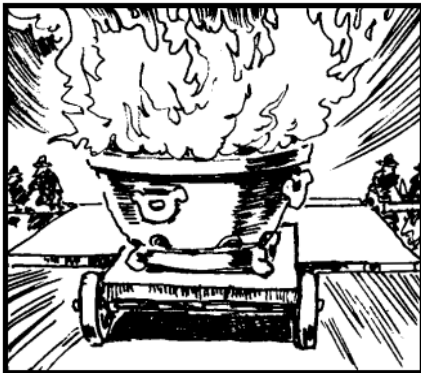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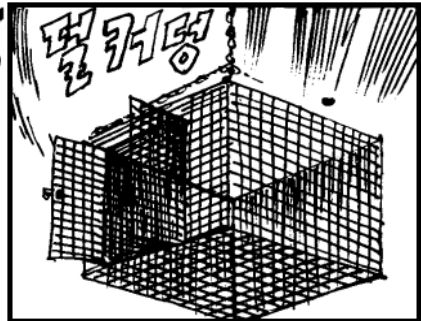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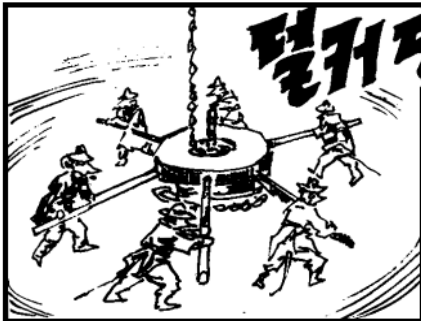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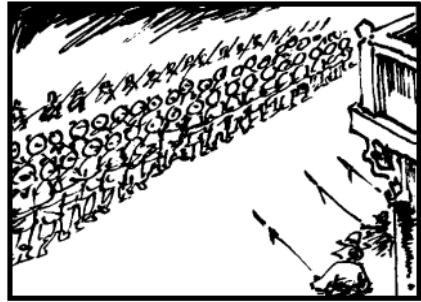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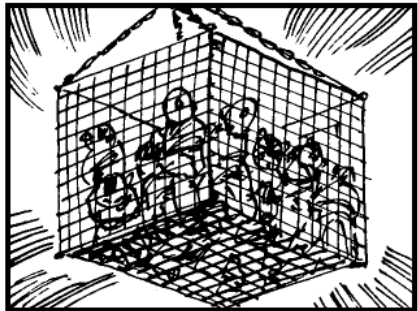
좋다. 너희들을 무모한 죽음에로 추동한 저 담발이놈을 때려죽이고 우리의 뜻을 받들겠는가, 아니면 불속에 들어가 통구이가 되여 우리의 식탁에 오르겠는가. 두 길중 하나를 택하라.

자, 우리의 뜻을 따를자는 앞으로 나오라.
으흠, 한놈도 안나선단 말이지.
좋다. 야, 시작하라!
덜커덩
덜커덩

앞렬에서 다섯번째만에 한 놈씩 일곱놈을 끌어내여 철창에 가두라.

빼앗긴 식량을 찾겠다는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놔라!
이 악귀같은 놈들아!
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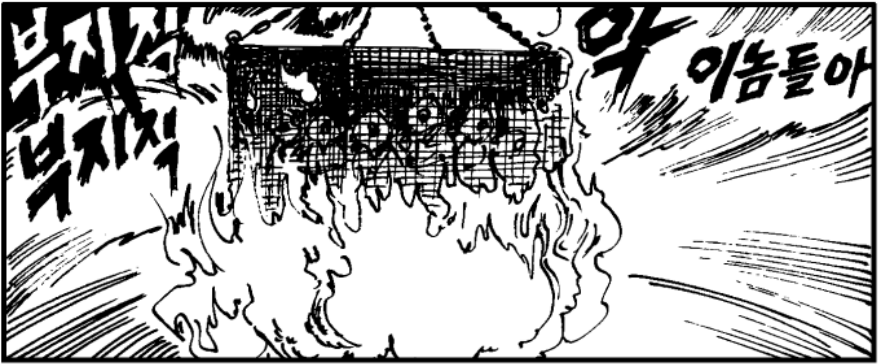
빨리빨리 처넣으라.
이놈들아!
악!
아!
원통하구나.

철창을 들어라

자, 이제라도 우리의 요구에 복종하겠다면 살려준다. 나도 너희들이 죽는것은 바라지 않아.
왜냐하면 일찌기 하늘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너희들은 일을 하고 우리 쥐들은 너희들이 생산한 낟알을 조금씩 가져다먹도록 미리 정해주셨기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들이 다 죽으면 우리에게도 좋을것이 없다. 봐라! 하늘이 정해준 그 리치를 거역하고 손에 창을 들었은즉 죽음밖에 차례지는가.
그러니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하늘땅도 감동하고 우리 쥐들도 감동하여 너희들에게 만복을 내려줄것이다.
닥쳐라!
이 뻔뻔스러운 도적놈아!
우리가 흘린 피땀이 아직도 적고 대대로 일하지 않고 도적질해 먹은 낟알이 아직도 작단 말이냐?

이 날강도놈아!
똑똑히 들어라. 세상엔 일하는 백성이 기본이고 일하는자를 천시하고 등쳐먹으면 세상은 망한다. 어서 도적질한 식량을 도로 내놓고 우리모두를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두령님, 제가 저 담발이놈을 당장 때려죽이겠소이다.
아니다. 저놈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안타깝게, 제일 잔인하게 죽일테다.
내 네놈들의 고기로 매일마다 주연을 베풀고 도락을 즐길테다.
시작하라!

부지직
부지직
악
이놈들아

형제들!
이 원쑤를 갚아달라!

야
어서 날 죽이란 말이다!
야!
죽여라!
우리모두를 죽여라!

그날저녁

변탈이,
이 반종놈아!
어서 마셔라.
너의 노예들
을 위하여!

영원한 우리의 노예
동산을 위하여!

드디여 권력을 쥐려던 내
꿈의 서막은 열렸다. 이놈들,
꿈틀거리는 내 야심의 끓는 피
가 식을 그날은 아직 멀었다.

야앙
내가 눈이 멀었지. 하늘땅에 사무친 이 원한을 눈에 흙이 들어간들 어이 잊는단 말이냐!
어 헉헉
대장님, 진정하세요.

황금이, 변탈이란 놈은 과연 어떤 놈이요?
그놈은 서해곡창 등줄쥐의 후손이예요. 중조부때 들쥐무리에서 란이 일어 우리 밤골로 피난와서 정착했나봐요.

우리와 함께 숨쉬고 일하며 먹고살면서 몇대가 지나갔어도 착취자의 피와 본성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수도 없다는거요. 털빛은 변색돼도 속엔 간악한 야심이 살아있었다는거지. 그런놈의 침발린 말을 믿었으니…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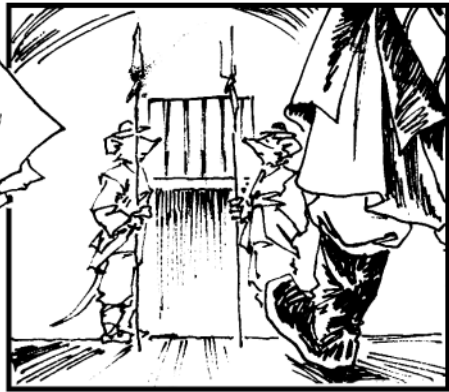
변탈이, 수송대를 끌고온 그 황금빛 미녀가 정말 황홀하던데 옷단장시켜 데려올수 없겠나?

예? 황금이를?
아니?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엉?
흥
령감님께서 정녕 그 천박한 종년을 가까이 하시겠다니 소녀들은 그만 물러가겠나이다.
아이구, 요것들, 됐다, 됐다. 내 다시 그러지 않겠다.
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황금이는 제 약혼녀올시다. 그 담발이녀석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저렇게 됐은즉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밤으로 그년의 기를 꺾어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나이다.

음, 두령이 됐으면 응당 귀부인을 맞아야지. 그년이 너의 배필로 되는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형방, 감옥열쇠를 변탈이에게 줘라.

알겠소이다.
이봐, 조심하라구. 록록치 않아 보이던데… 그것들은 악이 나면 이발로 깨물거던. 혼자서 힘들면 내가 방조하지.
괜찮소. 내 그년을 꺾지 못하면 성을 갈고말테요.
어쨌든 성공을 바라네. 흐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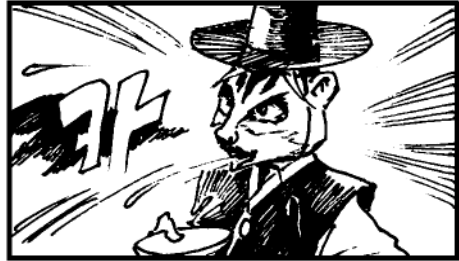
변탈이, 너를 위해 결혼축하연을 성대히 베풀테니 신부의 옷단장 곱게 차리고 우리모두에게 술을 치도록 하라. 새벽이라도 좋으니 기다리겠노라.
예잇!

황금이 이
년, 베잠뱅이
를 벗고 비단
옷을 걸친 이
변탈이를 옛
적그대로 대
하진 않을테
지. 오늘밤
기어이 네년
을…
한편
손이 모지라지고
이발이 부스러져도
기어이 굴을 뚫고
나가야 한다.
놈들이 와요.
철커덩
황금이, 어서 나와. 그새 둘이
하고싶은 소릴랑 다 했을텐데…
이젠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담발이, 안됐구만. 자넨 결국 경쟁에서 패한셈일세. 그러니 강자가 모든것의 주인이 되는것은 응당하지. 밤골도 도토리골도 또 황금이도… 흐흐흐, 이제 자넨 처참하게 죽게 될걸세. 죽어 땅속에 가거든 날 원망말게. 어찌겠나, 그게 다 자기 팔자인걸.
아가릴 닥쳐라. 이 더럽고 추악한 원쑤놈아. 네놈에 대한 원한이 하늘땅끝에 닿았으니 이제 네놈은 이 소굴과 함께 더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흥, 밤새 저주하며 눈물을 흘리라구. 그럼 난 황금이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가겠네. 잘 있으라구.
대장님, 절 믿어주세요.
황금이, 난 믿소.

꿀꺽
꿀꺽

카

챠! 이런, 밤새 그러구 있을텐가? 배고프겠는데 어서 먹어.

황금이, 우리가 뭣때문에 일하고 땀흘리며 고생고생 살아가나? 종당에는 잘사는거겠지. 그러니까 현명한자는 그 잘사는 길을 빙빙 에돌면서 꼬부라진 길을 갈것이 아니라 휙- 하고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야 할게 아니겠어.
그래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이 길이야? 동산과 우리모두를 팔아 저 하나를 위하는 그 추악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네가 말하는 그 지름길인가 말이다.

허, 뭐 그렇게 격해할것 있어? 당장 죽이겠다는데 어쩔수 있는가 말이야. 살아서 락이지 죽은 다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화를 복으로 만들었지. 너두나두 다 같이 잘살수는 없는 법이야.
끄윽
휴
그러지 말구 옷단장하구 대궐에 나가 술을 치라구. 모두 너를 귀해 하는데…
좋다. 내 너희 두령한테 한마디 하긴 해야겠다.
뭐?!
너희 두령?!
하긴 내 두령이야 두령이지.
히히히
자, 옷을 받으라구. 황금이가 칠보단장에 족두리까지 척 쓰고나서면야 여기것들 같을가. 히히.

이제 두령님이 잔치상을 성대히 차려줄 걸세. 황금이, 우리 신혼려행을 도토리골로 하자구. 의장기를 날리며 2백의 군사를 거느리고말이야, 늙다리들이 깜짝 놀랄거야. 히히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

히히히 흐흐

경치좋은 비로봉우에 궁궐같은 집을 지어놓고 아들딸 한구들 낳고… 히히히.
이 원쑤놈아, 어디 죽어봐라. 불타죽은 동료들의 복수다.
아직 다 못입었나? 꽃같은 그 모습 한번 볼가, 이건 정말 죽여주는구만.
떡

어서 감옥으로 가자.
섯! 누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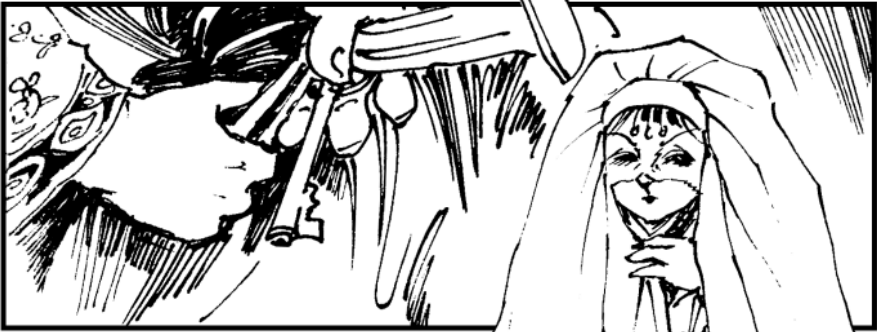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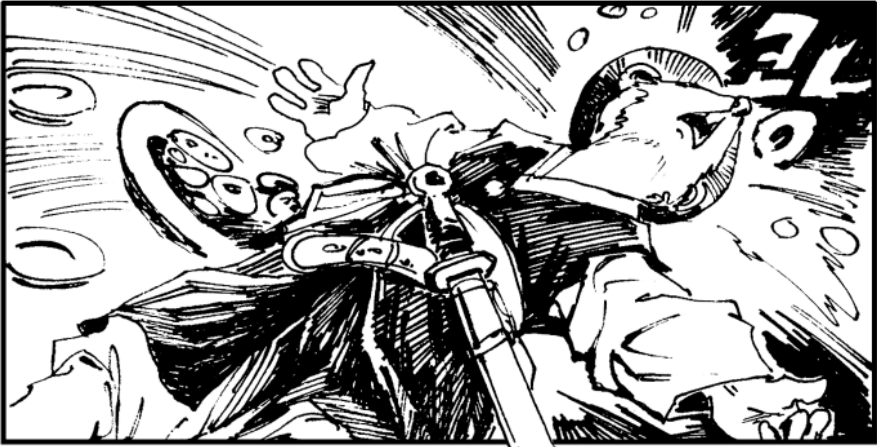
아니? 자네 왜 그러나.

엉?

휘익
치마귀신!
헉

황금이!
변탈이놈을 까눕히고 열쇠를 빼냈어요. 자, 빨리요.

동료들이 갇힌 곳을 알아야겠는데…

우선 놈들의 시체를 감옥안에 처넣고…

쫌통, 짝발이,
이자 무슨 소릴
했어?
놈들이 와요.

음, 쫌통이
가 어제밤 꿈
에 치마귀신을
봤다나.

이놈아, 찍소리하면
죽인다.

우리 동료들이 어
디에 갇혔는가?
제발
목숨만…

내가 온 길을 따라가면 쌍보초가 있소이다.
윽

황금이, 여기서 망을 보다가 정황이 생기면 달려오라구.
알겠어요.

시간이 새롭다. 빨리 가자.
저벅 저벅

장훈이 받아라.
엉? 언제 그렇게 됐어? 야, 한수만 물리자.

이 풋수야, 이건 내긴데 물리자는게 뭐야. 어서 내라.
좋아, 어디 보자. 이 판에선 내가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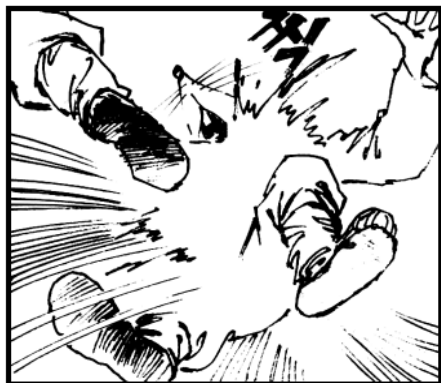
누구야?

나 짝발이다. 음, 너희 장기를 두는구나.
자식, 먹자판에도 못참가하는데 장기라도 놀아야지.
야, 두령이 마시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마시는줄 몰라? 오늘은 걱정없다니.

그런데 뚱뚱인 어디 가고 네녀석이 오는거냐?
엄?!
저… 저놈은…

찍

쫘
ㄱ

짜앙
군사들!

초비, 내 말을 명심해 들으라구. 놈들의 파수와 출구, 기름창고, 식량창고를 장악하고 모든 통로에 기름을 붓게. 변탈이놈은 죽었으니까 내가 변탈이로 가장하고 황금이와 함께 대청에 나가 시간을 끌겠네. 그동안 자네는 식량을 굴밖으로 뽑은 다음 성문쪽에서 불을 질러 놈들을 숨구멍쪽으로 올리밀도록 해야겠네. 그리구 공격에 앞서 대청으로 군사들을 보내주게.
알겠네. 내가 동료들의 바줄을 풀어줄테니 자넨 어서 가게.
그럼 믿겠네.
시간은 생명이다. 덤비지들 말고 서로 바줄을 풀어주라. 1패는 숨구멍, 2패는 기름창고, 3패와 수송대는 성문과 식량창고의 파수들을 장악하라. 각 패들의 련락은 전병으로, 지휘처는 기름창고이다.

황금이, 그 창들을 동료들에게 넘겨주고 빨리 나와 함께 가기오.

변탈이놈이 대청에 끌고가려 했댔지?

그래요.

내가 변탈이로 가장하고 황금이와 함께 대청에 나가 시간을 끌어야겠소.

어서 이 검뎅이로 눈언저리를
검게 하세요. 그래야 이놈과
비슷해질테니까요.
어떻소? 변탈이놈과
비슷하오?
호호, 신통
해요.
이놈의 시체를 부엌
구석에 감추고 빗장
을 지르자구.

황금이, 역스럽지만 놈들에
게서 축복을 받아야겠구만.
이게 다 동산을
위하는 일이 아
니겠나요.
황금이!

식량을 밖으로 뽑은 후 성문쪽에서 불을 지르게 되여있소. 그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오. 때가 되면 우두머리들을 찔러눕히고 대청앞뜰로 뛰여내려 숨구멍쪽으로 빠지자구.
알겠어요.

신랑 신부 현신이요!

거, 변탈인지 뭔지 하는 놈이 멋진 신부를 옆에 척 끼니 오늘 별루 훤해보이질 않수?
과연 절색이로군.
눈꼴이 시여서… 갈잖은것들이… 흥!

과시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가 분명하도다.
으흐흐

흥공하나이다
그대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
렸으니 풍악소리 요란히 울려
오늘을 즐기도록 하라.
험!

뚱기당
뚱
땅

술잔에는 향기로운 찹쌀약주 찰랑이고
요 내 가슴 사랑꿀물 가득찼네
이 몸 어이 늙다하랴 고목에 꽃이 피니
흥이로다 온갖 새들 노래한다네
품파품파 새벽도록 즐긴들
그대와 나 품파라 품파
한생도록 즐긴들 싫은 정 있을손가
뚱 땅 뚱 땅
망조가 들었지. 난 더 못봐주겠소.
해괴한 일이로다. 야야, 밖으로 나가 고말자.

아니? 이런, 우리가 붓는 술이야 받아야지 섭섭하오이다.
허, 흥이 깨지게 왜 벌써 일어들 나는거냐, 엉? 괘씸한것들!
이 시각 초비의 지휘에 따라 밤골군사들은 잠자는 놈들의 병영에 뛰여들어 군졸들을 무자비하게 족치고있었습니다.
악 으악
이놈들! 죽어봐라.

너는 뛰여가서 식량
운반이 끝나는 즉시
불을 지르라고 해라.
시간이 없다.
식량운반이 끝나는
즉시 불을 지르라는
명령이다.
빨리 빨리

일손을 다그쳐라. 기름을 충분히 부어야 한다.
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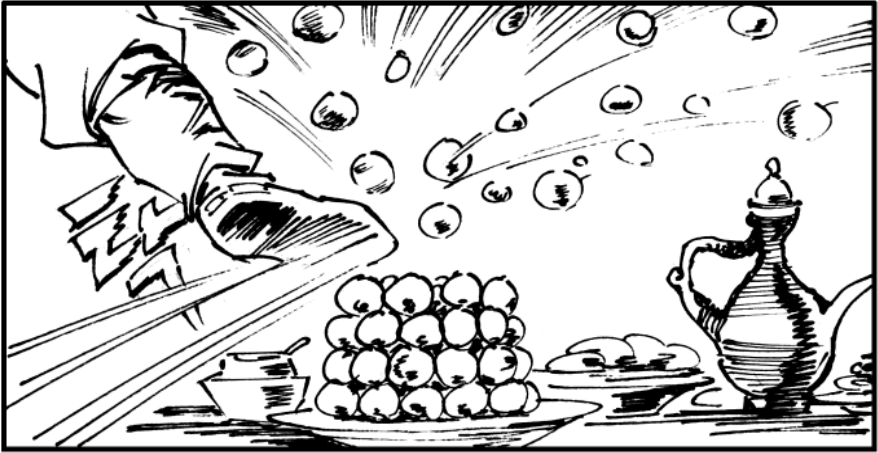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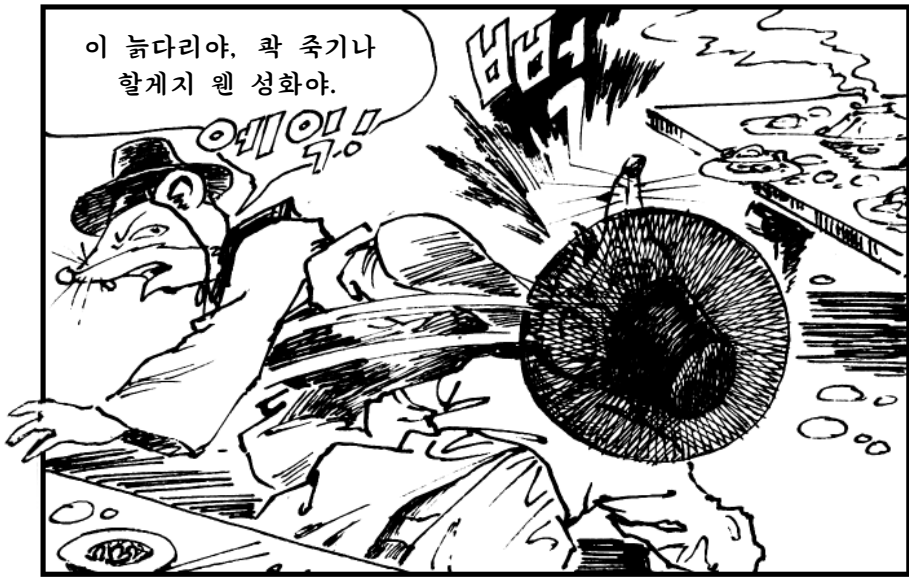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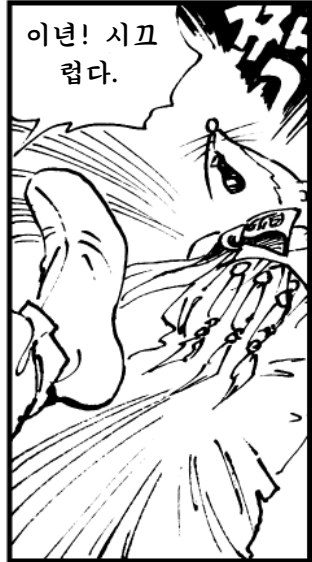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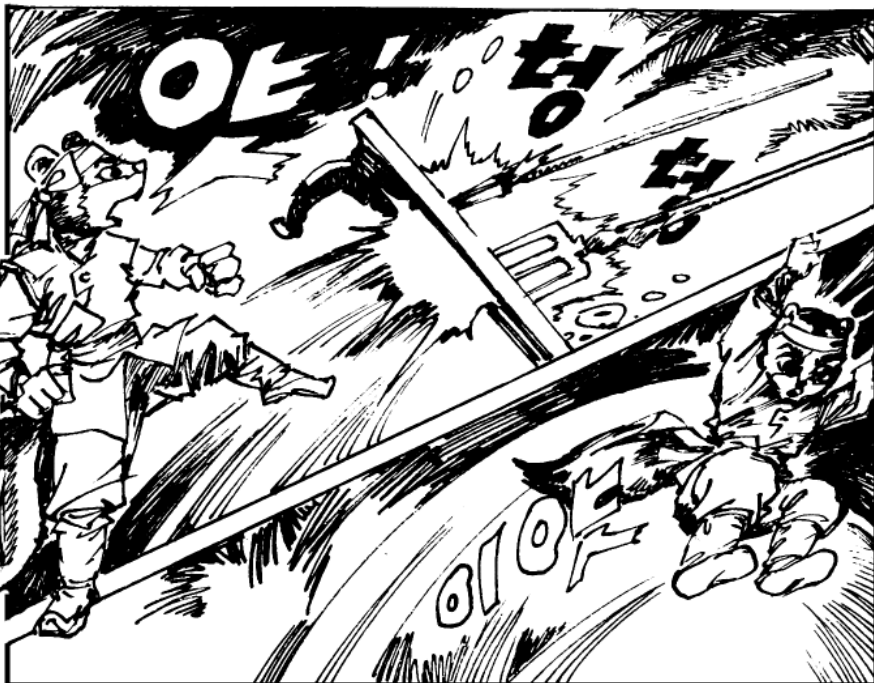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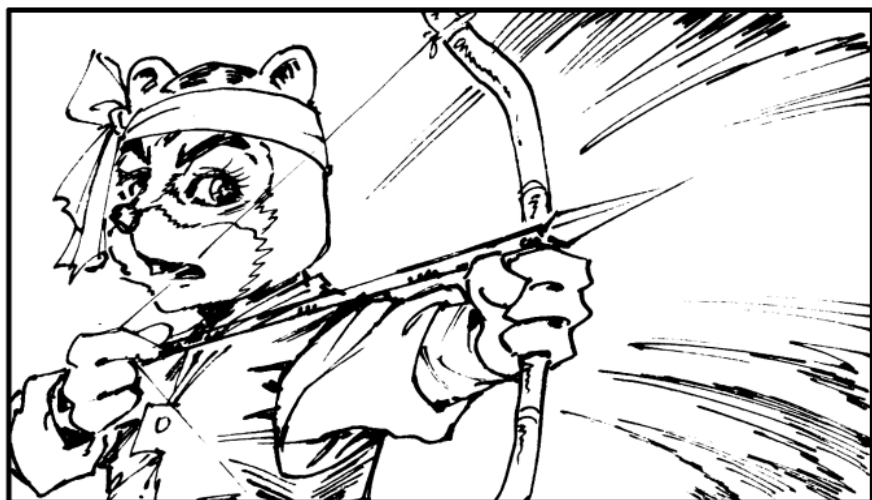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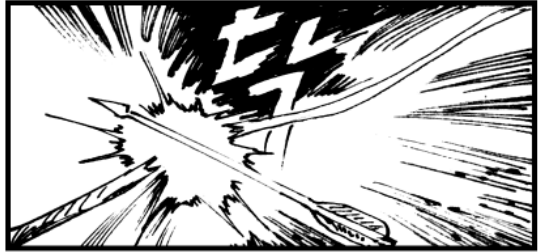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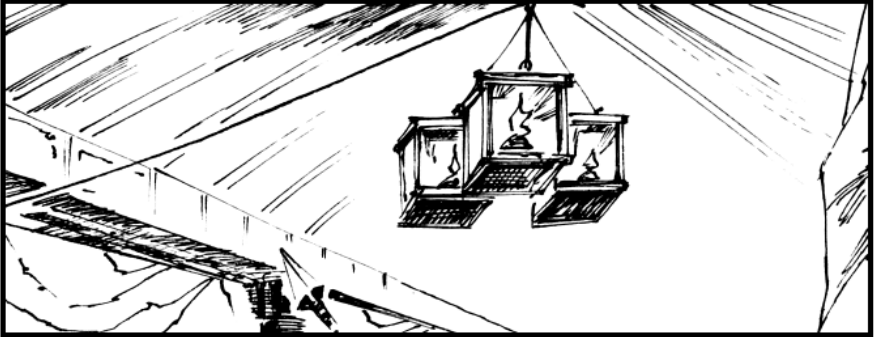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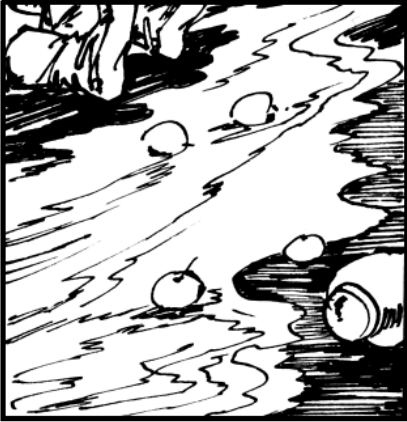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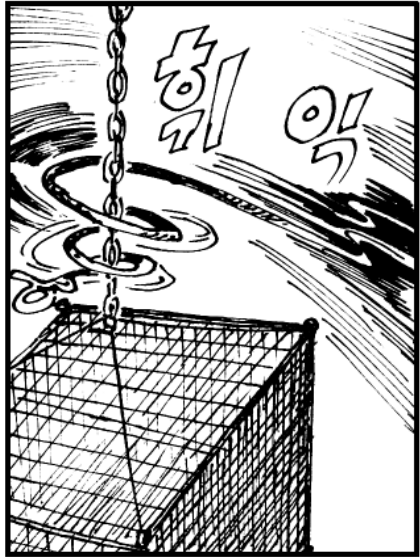
한편
존귀하신 대두령님, 부디 옥체만강하옵소서.

오냐, 오냐, 나의 귀여운 천사.
으흐흐
두령님!
큰일났소이다-

엉?! 무슨 얼이냐?
감옥에 갇혀있던 다람쥐놈들이 몽땅 나와서 군졸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굴에 불을 지르려 하고있소이다.
야, 이 정신빠진 놈아. 바줄로 묶어서 감옥에 처넣었던 놈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올수 있단 말이냐?
잉
이건 죄다 사실이오이다.
툴툴이, 교설이, 당장 나가서…
억
휘

받아라. 이 원쑤놈아!
변탈이, 네 이놈!

똑똑히 봐라.
나는 밤골대장 담
발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네
놈들은 여기서 한발자국
도 움직일수 없다.

받아라

얏
으악
날 살려라.

형방 이놈!
내 칼 받아라.

퍽

이놈아, 어딜
뛰려구.

앗! 뜨거워!

밖에 누가 없느냐?
아이고, 령감. 갈이 가자구요.

이년! 시끄럽다.

애고

아이고, 이 살살이
를 살려줘요.
휘익

휙
예크
절삭
받아라, 이놈!
윽

앗!
황금이!

얏!

휘-잉

야!
텅
이야!

받아라

뻑

뻑

쨍강

불을
지르자

핑

탁

펑
부지직

황금이, 이젠 빠지자구.
불이야

내가 저 철창우에 바줄을 걸테니 조금 기다리오.

휘 익

황금이, 빨리!

바줄을
놓으라
구.
휘익
불길이 미치기 전에 숨구멍으로
빠져나가야 해.

자! 이젠 몽둥이를 하나씩 쥐고있다가 연기에 취해 기여나오는 쥐놈들에게 어제 우리가 받은대로 톡톡히 대접을 해주자.

이놈들! 제가 남에게 한 행위가 앞으로 자기가 받을 대접이라는걸 이젠 알겠지?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군사들! 오늘 우리는 간악한 무리를 쳐부시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자기 힘을 믿고 모두다 한데 뭉쳐서 정의의 싸움에 나선다면 어떤 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 착취자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그놈들과는 양보가 아니라 오직 과감한 공격전으로 맞받아나가 그 소굴을 짓부셔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군사들! 창검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평화롭고 행복한 동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일떠서라 동무야
총칼들고 싸우자
빌어선 안온다
울어선 안온다
용감하게 싸워서
행복의 봄 안아오자

우리 손은 보배
행복을 창조하는 보배
자기힘 믿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며 배우며
행복의 동산 꾸려나가자